

Netflix와 Youtube 플랫폼 내의 영화 자막오역 분석을 통한 영상번역 실태와 개선점: 한국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오경한¹, 노영희^{2*}

¹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 ²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Th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audiovisual translation through analysis of subtitle in Netflix and YouTube: focusing on Korean translation.

Kyunghan Oh¹, Younghee Noh^{2*}

¹Studen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ersity

²Profess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ersity

요약 인터넷과 연결 가능한 기기만 있다면 어디서든 외국의 영상매체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Netflix와 Youtube는 대표적인 영상 플랫폼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전적으로 자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인기 플랫폼에서 양질의 번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곳에서 동시에 상영하고 있는 영화를 골라 한국어 번역본을 가지고 비교해보고 더 나은 방향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좋은 번역이란 번역가가 시청자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적절한 생략과 자세한 설명을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물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작업에 임한다면 번역의 퀄리티는 확연히 올라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상번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짠 단가에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제작한 영상물들의 오역을 통해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는 영상번역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주제어 : 영상번역, 자막, 영화, 오역, 영상플랫폼

Abstract We are able to watch international multimedia anytime and anywhere, if we have the devices to connect Internet. Netflix and Youtube are the most massive and the most visited streaming platforms in the world. So If audiences are not familiar with the exotic culture such as behaviors, contexts, sarcasm, history and the current issues, It would happen a consequence that they entirely have to rely on subtitles in order to get inform. This research hereby aims to compare Korean transcriptions of the same movies streamed by the two selected platforms(Netflix and Youtube). As a result, good translation is that translators should use appropriate omissions and detailed explanations in limited time and space so that audience can concentrate on the vedio. If translators study the work in depth and spend enough time working on it, the quality of translation will definitely increase. Finally,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video translation market, which is still in the past, through the misinterpretation of videos produced at a low unit price and with minimal time without guidelines for video translation.

Key Words :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es, Movies, Mistranslation, Streaming platforms

*Corresponding Author : Younghee Noh(younghee.korea@gmail.com)

Received December 8, 2020

Accepted March 20, 2021

Revised January 24,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1. 서론

한국의 정책변화와 급진적인 IT산업의 변화로 집에서도 영화와 드라마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1]. 또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처럼 한국어로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더 가깝게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대형 영상공유 업체가 발전함과 동시에 인기를 얻고 있음은 분명하다. Google, Youtube, Netflix, Amazon과 Disney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대형 기업들도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틀어주던 외국영화, 드라마, 다큐 등을 보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그 만큼 외국의 디지털 미디어와의 교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번역시장은 이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번역 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해외 스트리밍 업체가 믿고 맡길만한 영상 장르에 따른 전문가보다는 프리랜서 번역가를 여럿 두고 있는 번역 업체에서 수주를 하고 있다. 그 말인즉 한 영화의 번역을 맡긴 곳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와서 다음에 또 맡기더라도, 전의 영화 번역을 맡은 번역가에게 일이 가지 않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막의 품질은 상당히 불규칙적이다. 자막은 영화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형 플랫폼처럼 시청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소한 오류가 영화세계 자체를 뒤틀어 놓을 수도 있다. 최근 마블영화에선 발견된 오역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Youtube 영화 코멘트에는 시청자들이 오역으로 불만을 토로하는데도 대형 플랫폼에서는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영화 번역에 예산을 조금만 늘려도 해결될 문제이다. 현재 시청자들의 영어수준은 높아졌고, 이는 번역시장 또한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영화사, 번역회사, 번역가들은 좋은 품질의 번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평준화시켜야 하며 영화번역 분야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막의 오역이 어떻게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영화이해를 망치는지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영상자막은 시청자가 원천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할 때 영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자막에 의지해 있는 시청자들이 잘못된 내용을 전달받는다면 영상 내의 전반적인 세계나 서사의 흐름에 혼란을 가지고 올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두 개의 대본과 영상의 상황, 배경을 비교하면서 어떤

플랫폼의 번역이 목표문화권 시청자들에게 맞게 직역 혹은 의역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좋은 번역의 예시를 제시하여 한국번역시장의 발전에 일조하고 한다.

본 연구는 같은 영화를 배급하는 두 개의 플랫폼(Netflix, Youtube)의 번역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분석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작업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영화번역의 특성

영화는 시각과 청각 이미지의 구성을 통해 재현하는 예술 행위이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진술하는 종합적 예술 장르이다. 따라서 영화번역이란 영화의 한 요소인 대사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을 파악하고 주제, 연출 의도, 작가의 인생관과 세계관까지도 해석하여 옮기는 작업이기도 하다[2]. 번역 또한 영화라는 '종합예술'의 한 부분으로 영화의 완성도에 기여할 수 있다. 영화의 특성상 시청자들은 자막뿐만 아니라 다른 시각적인 요소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영화번역은 시간, 공간의 제약이 존재하기에 축소번역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번역가 민병숙은 영화 번역을 이렇게 정의했다.

영화 번역이란 이색적인 문화 소개가 그 목적이 아니라 한글을 통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전해 줌으로 언어를 초월해 한 인간으로서의 애정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어 해석을 넘어 대사의 포인트를 정다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번역의 황금률이다. 따라서 번역의 필수조건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모국어 구사력이지만 외국어 실력이 아니다. 이렇듯 모국어와 외국어를 조금만 구사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좋은 번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3].

일반번역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영상번역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영상번역과 인쇄물 번역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인쇄물을 번역할 경우에는 내용과 문체를 중점적으로 두고 작업하지만 영상물일 때에는 화면, 음악, 배우의 연기, 어투, 호흡 등을 참고하여 화면과 일치하는 번역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영상번역 작가는 목표 문화권의 시청자가 더빙이나 자막으로 번역된 영상물

을 보고 원천 문화권의 시청자와 마찬가지로 영화 주인공의 감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동을 받아 웃고, 울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4]. Hatimand과 Mason[5]은 자막 번역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 (1) 말을 글로 옮기는 데 따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억양에 의한 강조나 말투 같은 것은 자막으로 표현의 한계가 있다.
- (2) 화면에 글자를 표시하는 물리적 공간, 시간이 제약이다. 화자의 발화속도와 일치해야 하는 것과 일정한 크기의 스크린에 자막을 넣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 (3) 자막이 영상과 싱크로율이다. 특정 자막과 배우의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2 선행연구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들을 휩쓸고 사랑받은 영화에서도 많은 오역이 속출해 왔다. 원인과 해결방안들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다. 박영은 영화 같은 영상매체는 영어를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학습 자료가 되는데, 영어자막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한글자막으로 확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상번역의 오역이 속출한다면 영화나 드라마들은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습매체로서의 신빙성을 잃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영상자막을 활용한 기존, 그리고 향후의 연구들 역시 그 타당성 및 신뢰도에 타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제기하였다[6].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이석규[7]는 '번역가는 영상물 번역 전에 해당 영상물의 전반적인 내용과 등장인물의 성격, 관계, 역할 등을 완전히 파악한 후에 번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영화의 내용 파악이나 검토와 수정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쫓기는 열악한 작업환경이라면 아무리 우수한 번역가라고 할지라도 오역 및 졸속 번역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90년대 중반부터 영화계 자막 관련 일을 한 문원립[8]은 자막 오역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상자막 분야의 발전 방향성을 그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그는 적절한 선별 혹은 평가 과정만 있어도 소비자들이 접하는 영화번역 수준은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원과 조규익[9, 10]은 번역자가 두 언어의 상용능력

뿐만 아니라 양국 문화에 대해 통찰력을 가져야 하며, 의미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부조화의 극복을 시도하면서 이념과 도덕 체계, 사회-정치 구조 등을 포함하는 문화들 사이에서 창조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번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바꾸는 일뿐이 아닌 다른 문화권의 이색적인 풍습과 언어, 행동양식들을 타겟시청자들이 이해 가능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은[11]은 자막 번역에서 E의 어투(영어의 어투)를 최대한 유사하게 형상화하고 그를 통해 원천텍스트의 캐릭터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시작하기 전 영상 내의 캐릭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적절한 어투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구영식[12]은 번역가 조상구씨의 사례를 들어 올바른 방향의 번역방법은 제시하고 있다. '에비타 패션'붐을 일으킨 영화 <에비타>를 번역하기 위해 에바 페론에 대한 전기를 읽어야 했고 주제곡의 국내 번역 가사를 수집해 조사했다. 심지어 <에비타>를 공연한 현대극단을 방문해 자료를 구하기도 했으며, 그는 철학에서 경제서, 역사서, 문학작품 등 번역에 도움이 될 만한 분야의 책은 모두 읽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번역 일에 착수를 하지만 번역 작가의 이름은 영화 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고작해야 텔레비전영화나 극장개봉영화 정도에 나올 뿐이다. 이런 현실 또한 비디오나 케이블영화의 번역이 엉망인 이유를 들었다.

선행 연구자들의 견해를 분석해보면, 번역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로는 외국어로 된 텍스트를 단순히 타깃언어로 번역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삼아 번역하고자 하는 영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Youtube와 Netflix 등 세계화가 되고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시청자의 수는 대폭 증가하였다. 이것은 곧 엉뚱하게 해석된 자막이 빠른 시간 시청자들에게 노출되어 오해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는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생생한 일상 언어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이기도 하여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번역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은 현재, 우리는 영화 내 오역들과 그것이 가져올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번역은 영화산업의 한 부분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 영화업계는 싸고 빠른 번역이라는 이념에서 벗어나 정확한 번역, 전달력 있는 번역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준점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연구절차 및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영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etflix와 Youtube, 2개의 플랫폼을 비교대상으로 하고 있다. Netflix는 미국의 주문형 콘텐츠 서비스 제작 기업이다. 1997년 캘리포니아 주 스크츠 벨리에서 Wilmot Reed Hastings와 Marc randolph가 설립하였다. 이 플랫폼 안에서 회원들은 Netflix Original 시리즈,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는데 평균 1억 2천 5백만 시간 이상을 할애한다. 모든 영상은 인터넷이 연결 가능한 모든 기기에서 어디서나 광고 없이 즐길 수 있는 사이트이다.

Youtube 영화는 Google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Youtube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이다. 이곳에서는 영화를 24시간 대여하거나 구매하여 평생 즐길 수 있다. 구독자 수는 125,000,000명으로 확인된다[13, 14].

3.2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영화는〈킹스맨〉, 〈쥘만지〉,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매트릭스〉, 〈포레스트 검프〉이다. 이 영화들을 선정한 이유는 두 개의 거대 플랫폼에서 상영되고 있고 개봉시기가 오래되어 국내에 상영이 많이 됐으며, 번역의 높은 퀄리티를 가질 충분한 기간을 가진 영화들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들은 두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작품들이다. 원작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의 즐거리가 탄탄한 것은 이미 검증되었고,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꾸준한 인기에 힘입어 방영되고 있다.

영화의 영어대본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15, 16], 빠진 부분이 없는지 영화를 보면서 검토하였다. 두 개의 플랫폼에서 각각의 영화를 보고 한글 자막을 작성하였다. Netflix에서 나온 자막은 K1으로, Youtube 자막은 K2로 표기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기준은 역시 번역의 정확성과 유연함이다. 번역가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번역을 하되 극에 직접적인 참견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정확히는 작가와 시청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되 자신의 생각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조사한 두 플랫폼의 한글 자막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고

생각되면 오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한 예로 쥘만지 중에 Sam이 “I mean, Parrishes have been going to Cliffside ever since the 1700s.”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역하자면 “내 말은, 패리쉬 가문은 1700년대부터 클리프사이드에 진학했었다.”가 되겠지만 자막은 “우리 가문은 대대로 그 학교를 다녔다.”로 되어있다. 연도, 학교명과 가문의 이름 등은 가독성이 없을뿐더러 사실 자체가 나중에 다시 언급된다거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이런 번역은 적절하다고 본다.

문원립, 박영 [6,8]의 연구에서 사용된 영화자막 오역 유형들은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바가 일치하여 본 연구의 분석 포인트로 사용하였다. E는 영어 원문, K는 그것의 한글 번역을 가리킨다.

Table 1. Analysis point

오역유형	설명
Improbable Interpretation	It is the case that the translator didn't seem to understand the sentence. It is difficult to picture the situation what EN means KO
Unsuitable Interpretation	the translated words may be understandable in other sentence but not in this line.
Better Literal Interpretation	It would have been okay, if it is translated in direct. The subtitle is unnecessary or too excessive.
Inappropriate Omission	It is the case that the whole or part of the sentence is omitted excessively. Audiovisual translation has space and time restriction in screen but some information has to deliver to audience for the understanding of movies
Awkward Interpretation	This is an awkward case of translated KO, a translator must have the ability to grasp and understand the meaning in the lines in EN to deliver it in KO
Negligence Interpretation	It is a misinterpretation due to carelessness rather than language ability.

4. 자막오역 분석결과

4.1 Improbable Interpretation

아버지와 앨런 사이에 있는 오해를 풀어주려는 어머니의 대사가 있다. E에선 전 장면에서 모든 사실을 앨런의 아버지에게 털어냈고 아버지가 오해했다고 설명하는 장면인데, K2에서는 그 자리에서 오해를 풀어주는 것처럼 표현했다. 전후 상황과 이어지지 않은 대사들로 시청자에게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번역이다.

Carol: I told your father what you told me this afternoon. It wasn't just Billy Jessup.

- K1) 아빠한테 다 말씀드렸어. 빌리 한 명이 아니라고 말이야.
- K2) 아빠한테 다 말씀드렸다. 빌리 혼자 아니었대요.

아래 대사 중에 동사 'keep'을 사용하는 걸 보면 Nora는 이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 다음 대사는 "I'm gonna put a reception area over here. and a bar over here in the parlor."이다. 이 대사에서 보면 이미 이 캐릭터는 두 번째 방문을 하기 전에 어떻게 꾸밀지 이미 생각해 둔 상태이다. 하지만 두 플랫폼 자막에서 마치 처음 방문한 집의 크기에 놀란 듯 묘사되어 있다.

Nora: Oh, boy! I keep forgetting how big this place is. Judy, Peter, come look at this.

I'm gonna put a reception area over here and a bar over here in the parlor.

- K1) 세상에 이렇게나 큰지 몰랐네요.
- K2) 어머니, 굉장히 크군요.

영화의 시작단계에서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다. 'History'가 '역사'로 번역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전쟁'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지가 탄생하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간의 역사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쓰인 말인데, '전쟁'처럼 하나의 큰 사건만을 명시하는 것은 영화의 흐름상 어색하다.

Galadriel: History become legend. legend became myth.

- K1) 역사는 전설이 되고 전설은 신화가 되었다.
- K2) 이 전쟁은 전설이 되고 전설은 신화가 되었다.

Frodo는 다른 지역에서 온 Gandalf 때문에 Bagginses가의 호빗들이 갑자기 모험을 떠나고 예상 밖의 행동들을 하여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영문대사나 앞뒤 맥락을 봐도 간달프의 초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Frodo: All right, keep your secrets. Before you came along, we Bagginses were very well thought of. Never had any adventures or did

anything unexpected.

- K1) 좋아요, 비밀로 하세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배킨스 사람들의 평판이 좋았어요. 엉뚱한 일을 전혀 안했죠. 모험이라든가.
- K2) 좋아요, 비밀로 하세요. 간달프를 초대할까말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어요. 모험이라고는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K1의 경우 영문대사를 직역해 냈고 K2는 완전한 오류로 보인다. 직역하자면 '반대편으로 가려면 사흘정도 걸려'로 볼 수 있다.

Gandalf: Now we have but one choice. We must face the long dark of Moria. Be on your guard! There are older and fouler thing than orcs in the deep places of the world. It is a four day journey to the other side. Let us hope our presence may go unnoticed.

- K1) 반대편으로 나가려면 4일 동안 가야해.
- K2) 나흘간이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왔어.

쥘만지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4명의 플레이어가 모두 있어야 한다. 하지만 Allen차례에 Allen이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계속 진행되지 못하게 되면서 나누는 대사이다. 'we'll finish the game later'말하며 경찰과 떠나는 Allen을 뒤로하고 Judy는 'Now how are we supposed to finish the game?'이라고 한다. 이 말은 그가 없이는 게임을 끝낼 방법이 없다고 허탈해 하는 장면이나 K1에서는 Allen의 전 대사에 의문을 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Allen: we'll finish the game later.

Sarah: Later?

Bentley: I suggest you all go home now.

Allen: Okay.

Judy: Now how are we supposed to finish the game?

- K1) 게임을 어떻게 끝낸다는 거죠?
- K2) 이제 어떻게 게임을 끝내죠?

4.2 Unsuitable Interpretation

K1은 친숙하지 않은 학교명을 계속 언급하며, 가문 대대로 졸업을 해왔다는 말과 함께 삼촌도 그곳을 나왔

다고 말한다. 삼촌이라는 인물은 이 대사 한줄 외에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K2같은 경우는 '가문 대대로'를 언급하고선 '삼촌'을 '아저씨'로 번역하였다.

Sam: I mean, Parrishes have been going to Cliffside ever since the 1700s. Even your Uncle Skylar went there.

K1) 패리쉬 가문은 1700년대부터 클리프사이드에 진학했거든 스카일라 삼촌도 다녔지

K2) 우리가문은 대대로 그 학교를 다녔다. 스카일라 아저씨까지도 말이다.

원문에서는 "Knew" 라고 과거형으로 쓰여 있으나 K1에서는 현재형으로 바꿨다. Judy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늦게야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 하는 장면인데, K1에서는 아직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Judy: Peter hasn't spoken a word since it happened.

Women: Oh, my. I'm so sorry. How terribly awful.

Judy: It's okay. We barely even knew our parents.

K1) 괜찮아요. 부모님을 거의 몰라요.

K2) 괜찮아요. 우린 부모님을 거의 몰랐거든요.

원정대가 위협에 처하고 Boromir가 반지를 빼앗기 위해 Frodo를 위협하는 바람에 Frodo는 팀원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혼자 여정을 하기로 결정한다. 그 후, Boromir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Strider는 반지가 물리적으로 우리 곁에 있지 않고 멀리 떠나버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K2에서는 반지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능력밖에 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Strider: I let Frodo go.

Boromir: Then you did what i could not. I tried to take the ring from him.

Strider: The ring is beyond our reach now.

Boromir: Forgive me. I did not see it. I have

failed you all.

K1) 반지는 이제 닿지 못할 만큼 멀어졌네.

K2) 반지는 이제 우리의 한계 밖이야.

박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남자는 이곳에 박쥐가 있을 리가 없다고 단정 짓고 있다. K1은 꿈꿈히 살피지 않고서 바닥 몇 번을 보고 하는 말이고 그의 태도는 영화내의 그의 행동과 대사에서 충분히 설명된다. 하지만 K2의 경우는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처럼 들려서 행동과 자막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

Man: I don't see any guano.

K1) 새똥은 안 보이는데.

K2) 새똥이 있을 텐데...

4.3 Better Literal Interpretation

경찰관 Bently는 경찰서에서는 상황이 급하다고 지원을 요청하지만 다른 사람을 투입하라고 하고 자신의 본래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는 장면이다.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으로 봤을 때, 해고를 예시할 만한 언행들은 전혀 없고 K1 자막처럼 단순히 고된 자신의 직업을 탓하는 대사이다.

Bentley: I should've been a fireman.

K1) 소방대원이나 할 걸.

K2) 해고당하게 생겼군.

Boromir는 Frodo를 설득하여 반지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의 대사를 보자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하며, 그의 고통과 괴로움에 공감해 주고 있지 않다. K2의 자막을 보면 대사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번역가가 영화에 지나치게 개입하였다.

Boromir: None of us should wander alone, you least of all. So much depends on you.

Frodo? I know why you seek solitude. You suffer, I see it day by day. Be sure you do not suffer needlessly. There are other ways, Frodo, other paths we might take.

K1) 괴롭겠지 매일 같이 눈에 보여

K2) 너와 같은 고통을 나도 매일 보고 있지

WRAITH의 칼에 찔린 Frodo가 사경을 헤맬 때,

Strider는 그가 어둠속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엘프인 Arwen이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상황이다. K1은 의역보다는 직역을 하여서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한 반면, K2는 ‘생기를 찾아봐요.’라고 의역하였다. 물론 이 말은 아픈 이에게 다시 생기를 되찾아서 좋은 상태로 돌아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지만, 이 상황에선 맞지 않는 번역이다.

Arwen: Frodo, I am Arwen. I've come to help you. Hear my voice. Return to the light.

- K1) 내 목소리를 듣고 빛으로 돌아와요.
- K2) 내 목소리를 듣고 생기를 찾아봐요.

Bentley가 일단 이 영화 내에서 하는 역할은 재미와 관객의 긴장감 해소이다. 코믹스러운 표정과 재치 있는 입담을 가진 캐릭터이다. Allen이 타잔이나 입을 벌린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비꼬며 불법이민자 취급을 하는 문장이다. ‘신분증 있어요? 내가 맞춰볼게요. 깜빡하고 다른 타잔 옷에 놓고 왔죠?’라고 직역을 하는 게 좋았을 것이다.

Bentley: You got some I.D? oh, let me guess. You left it in your other Tarzan outfit?

- K1) 신분증 있어요? 타잔이라도 갖고 있겠지.
- K2) 신분증 좀 봅시다. 오리발 내밀지 말고.

Bentley는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괴상한 소동이 일고 있는 자신의 관찰구역을 수습해보려고 하는 인물이다. 사건의 시작이 어디이고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우여곡절 끝에 자동차를 되찾아 Parrish가의 집으로 향하면서 무전을 한다. 영화내의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정확히 해야 할 말을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 캐릭터이다. K1은 원문의 중요한 포인트를 생략하였다. ‘소동의 원인’이나 ‘누가 연루됐는지’라는 식으로 원문에 충실했어야 했다.

Bentley: I think I know who's behind all this. I'm headin' to the Parrish place. gimme backup.

- K1) 패리쉬 저택으로 가는 중이니 지원 바란다.
- K2) 난리의 원인을 찾은 것 같다. 패리쉬저택으로 가겠다.

극중에서 Sarah는 심령술사로 나온다. 26년 동안 미

치광이 취급을 받고 외톨이처럼 자란 탓인지 심리 상담과 약을 복용하면서 지내고 있다. 그런 탓인지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으로 자랐다. 그녀의 전반적인 대사 중에서 ‘a lot of negative energy’, ‘a radiant spirit’과 같은 말을 사용한다. 또한 그녀의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는 대사가 아래 대사이다. ‘천칭자리라서 그래’ 정도로 번역했다면 이야기의 깊이가 더해졌을 것이다.

Sarah: Ignore him, honey. He's a Libra.

- K1) 무시하렴. 원래 성격이 저래.
- K2) 신경 쓸 거 없어, 타고난 성격이니까.

4.4 Inappropriate Omission

원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다. “네 엄마와 내가 결정...”이라는 부분은 Youtube 내의 번역가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거부장적인 성격을 확대해 왔다는 점과 영화 내에서 엄마라는 역할은 중요하지 않은 점에서 생략되어도 영화 전반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앨런이 자신의 집안이 부자라는 것 때문에 남자아 이들에게 따돌림 받았다는 것은 영화초반에 상세히 설명이 되었다, 따라서 앨런에게 남자답게 굴라고 하며 남자 전용 기숙학교로 보내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건 후에 앨런은 가출을 결심하다가 추만지 세계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Sam: Your mother and I have decided that you're ready to go to the Cliffside School for boys.

- K1) 네 엄마와 결정했다. 클리프사이드 남학교에 입학해도 되겠더구나.
- K2) 클리프사이드 학교에 갈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쥬디가 부모님의 죽음 이후로 거짓말을 자주하게 된다. 이 장면에선 집을 보여주는 공인중개사에게 꾸며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다. K1에선 ‘debris’, ‘잔해’로 부모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그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몰랐지만 그 편지를 받은 이후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됐었다고 설명하는 장면이나 K2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Judy: they managed to write us a really beautiful good-bye note that was found

floating in a champagne bottle amongst the debris.

K1) 굿바이 편지를 겨우 남기긴 했어요. 병에 담긴 편지가 잔해에서 발견 됐죠.

K2)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샴페인 병에 넣어 띄워 보내셨죠.

원하는 곳을 볼 수 있는 수정구슬(A Palantir)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물론 K2의 의역처럼 간달프가 하려는 대사를 풀어서 단편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오류는 아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예견석’이라는 오브젝트는 영화배경의 깊이를 더해주고 관객들의 흥미를 충분히 갖고 영화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Gandalf: A Palantir is a dangerous tool.

Saruman: Why? Why should we fear to use it?

Gandalf: They are not all accounted for, the lost seeing stones. You do not know who else may be watching.

K1) 행방이 묘연해진 예견석들이 있잖아. 다른 누가 보고 있을지도 몰라.

K2) 이런 마법의 돌은 나에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Judy와 Peter가 무섭다며 추만지 게임하는 것은 옆에서 지켜봐달라고 부탁하지만, Allen은 거절한다. 이에 Peter는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자주 사용했던 ‘반대심리’라는 심리기술을 Allen에게 사용한다. 25년 동안 추만지 세계에 갇혀있던 Allen의 심리상태가 아직도 초등학생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재치 있게 표현하는 대사이다. K2의 경우는 적절한 예이다. ‘답임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보통 초·중·고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로 그 범위는 불특정하나 아직 미성년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직관적으로 Allen이 미성년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K1처럼 영문을 직역했다면 ‘sixth grade’를 같이 넣어서 ‘6학년 때 가르쳤던 니더마이어 선생님’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해줬어야 했다.

Judy: So if you're not help us, what are you gonna do?

Allen: I don't know, Pretty much take up where I left off. I wonder if Mrs. Nedermeyer's still

teaching sixth grade.

Peter: Come on, Judy. He's not gonna help us. He's afraid.

K1) 니더마이어 선생님이 아직 계신지 궁금하구나.

K2) 내 답임 선생님이 아직 계실지 몰라

4.5 Awkward Interpretation

‘A trailer park’는 미국의 하층민들이나 히피들이 트레일러에 살고 있는 장소를 이야기한다.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서 ‘가난뱅이’로 변환한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찢어지게’ 라는 단어는 어색하게 들린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정도로 언급했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Allen: Probably married Billy Jessup and they're living in a trailer park. Let's go

Judy: Maybe she'll know where Sarah went.

K1) 빌리와 결혼했겠지. 그러곤 가난뱅이가 됐을걸.

K2) 분명 빌리와 결혼해 찢어지게 살고 있을 거야.

추만지 세계에서 나온 거대한 식물 넝쿨이 Peter의 발목을 감아서 끌고가는데 Allen이 대대로 전해내려 온 할아버지의 칼을 집어 들어 넝쿨을 자르면서 하는 대사이다.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웃긴 대사하나를 내뱉으면서 액션을 취하는 건 미국 코미디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이다. 우리말로 직역을 해버려서 웃기기보단 굉장히 엉뚱하고 어색한 말이 되어 버렸다.

Allen: Whoa, harvest time!

K1) 추수해야겠다!

K2) 추수한다!

캐릭터 설정상 Sam은 Frodo 집안의 정원사 출신이고 Frodo가 외모와는 다르게 10살 연장자이다. 영화 내의 계급사회를 우리나라의 존댓말과 호칭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영화 내에선 ‘하오체’같은 예사높임법의 격식체가 많이 보인다. 영화상의 옛날 분위기와 어우러져서 큰 불편함은 없으나, Netflix상에서는 ‘나리’라고 칭하여 둘 사이의 계급을 강조한다. Youtube내에서는 내내 ‘프로도씨’, ‘프로도’등으로 이름을 언급하나 해당 장면에서의 ‘당신’은 좀 뜬금없다.

Sam: I did, but... we did what we set off to do, didn't we? We got the ring this far, to

Rivendell, and seeing as how you're on the mend. I thought we'd be off home

K1) 나리의 몸이 나아지고 있으니 곧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K2) 당신 몸이 완쾌됐으니 곧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요.

자신의 생일파티의 마지막 연설을 한 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반지를 사용해 사라져서 깜짝놀래킨다. 그런 뒤, Bilbo가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는 장면이다. Gandalf의 대사 'I suppose you thought that was terribly clever'에 '작별인사'를 연상케 하는 단어가 없어도 앞뒤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는 자막이다. 하지만 Youtube 자막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Gandalf: I suppose you thought that was terribly clever.

Bilbo: Come on, Gandalf! Did you see their faces? I did, but...

K1) 대단히 재치 있는 작별인사 이었다고 생각하겠지.

K2) 그게 대단히 끔찍한 작별인사라고 생각했군.

4.6 Negligence Interpretation

몇몇 장면에서는 언어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다기 보다는 부주의로 인해 오역에 이른 경우가 상당 수 확인 되었다.

보통 '아침에'라는 일반적인 시간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치사 'In'을 사용한다. In the morning of + 특정한 사건이나 날짜를 써서 표현할 수 도 있다. 'In'과는 다르게 'on'은 특정한 날짜를 설명할 때 사용되기는 하나 보통은 공간을 설명할 때 훨씬 자주 쓰인다. 아래 대사들을 보면, Youtube 자막에서는 'midsummer's eve'앞에 'on'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배경보다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오인하고 아이센 강이 미드섬머스의 이브라는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하였다.

Saruman: They crossed the river Isen on midsummer's eve, disguised as riders in black.

Gandalf: They have reached the Shire?

K1) 한여름 전야에 아이센 강을 건넜지. 흑기사로 위장을 하고서.

K2) 그들은 '미드섬머스의 이브'에 있는 아이센 강을 건넜어. 흑기사로 위장하고서 말이야

특정 마을이나 도시 이름 같은 고유명사들은 발음나는 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이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Montgomery라는 명사는 어느 영화에서나 '몽고메리'로 꾸준히 번역되어 왔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자막인 만큼 시청자들에게 익숙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Forrest: Mama decided to let those rooms out, mostly to people passing through, like from oh, Mobile, Montgomery, places like that.

K1) 엄마는 방을 세주기로 했어요. 대개 모빌이나 몽고메리에서 온 지나가는 여행객들한테요.

K2) 엄마는 방을 세주기로 했어요. 대개 모빌이나 만트거머리로 가는 여행객들한테요.

대본에 'Man'이라고 적혀 있다면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수가 아닌 복수 'Men'이기 때문에 한명의 사람이 아닌 인간종족을 일컫는 말이 된다. 또한 Elrond의 대사는 인간종족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한 인간이라고 특정 짓는 Gandalf의 대사는 전혀 맞지 않다.

Gandalf: It is in men that we must place our hope.

Elrond: Men! The race of men is weak, failing.

The blood of Numenor is all bit spent, its pride and dignity forgotten. It is because of men that the ring survives. I was there, three thousand years ago, when Isildur took the ring. I was there when the strength of men failed.

K1) 인간에게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K2)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할 인간이 있네.

5. 결론 및 시사점

안녕하세요. 본 연구에서는 대형 영상 플랫폼의 영화 속의 자막 오역 중에서 여섯 가지의 분석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위와 같은 각각의 스트리밍 플랫폼을 분석하여 3가지의 결론과 시사점을 작성하고자 한다.

첫째, 적절한 생략의 필요성이다. 두 개의 플랫폼의 영어번역의 정확성을 보았을 때, Netflix 자막이 원문을 최대한 살려서 번역이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소해 보이

지만 불필요한 호칭생략, 그리고 영화자막의 특성상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는데,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불필요한 호칭은 생략했고, 의역보다는 직역에 가까운 형태로 번역을 해서 시청자가 디테일한 정보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한 게 느껴졌다. 그러다보니 빠르게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캐릭터의 표정과 행동 보다는 자막을 읽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 피로도 또한 올라갔다. Hey, Allen, Honey ect 와 같이 딱히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 사용한 말들도 모두 번역이 되었다. 보통 영화 내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것은 영화 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를 클로즈업과 함께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라 자막으로 눈이 돌아가는 짧은 시간도 영화 내의 긴장감을 무너트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Youtube는 많은 부분을 생략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적은 양의 텍스트에 부담감을 확실히 덜하고 캐릭터의 표정변화나 몸짓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생략을 했다는 것은 영화 내에 번역가의 개입이 일어났다는 의미이다. 영화 초반 아버지와 앨런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시퀀스에서 아버지의 대사가 축약되어서 너무 차갑게 보인다. 앨런은 자신이 남자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걸 아는데도 그런 아들을 보며 사내 아이라면 당연히 맞서라며 떠미는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를 계기로 후에 아버지는 앨런을 남자 전용 기숙학교로 보내려고 할 때 사건은 절정에 치달고 결국 앨런은 추만지라는 게임을 이용해 현실을 도피하려 한다. 하지만 Youtube에서는 '남자학교'가 생략되어서 사건자체가 단순화 되었다. 영화가 나오는 스크린 아래의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의 불만사항을 호소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자막의 싱크이다. 전반적으로 대사가 발화되고 0.5초정도의 딜레이가 있고 뒤에 자막이 나와서 상당히 불편하다.

둘째, 영화에 대한 번역자의 배경지식의 필요성이다. 반지의 제왕, 추만지 같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의 경우는 팬 층이 두터워서 인터넷 내의 분석된 자료들이 상당하다. 아주 사소한 단어들조차 팬들에게 질타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영화 1편 초반, Sam은 Frodo를 부를 때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반면, 후반부터는 'Mr. Prodo'라고 존칭을 사용한다. 또한, 추만지 영화 내의 Sarah와 Allen은 26년간 외부로 부터 동떨어져 어두운 성격을 가졌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사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 정보전달을 하기 위해 작가가 만들어 낸 문장이다. 그것에서는 캐릭터의 과거나 아픔들

이 녹아 있다.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를 E에서 K로 옮기는 것 뿐 아니라 캐릭터를 이해하고 번역을 해서 시청자들이 작가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번역작업으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조금 더 영화의 시나리오와 배경을 이해한 사람이 번역을 했다면 명작 그대로의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싶다.

셋째, 시청자와의 소통의 필요성이다. Youtube 시청자들은 Netflix 시청자들처럼 월정액을 지불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특정 영화 하나에 돈을 지불해 대여 혹은 구매해야 한다. 기대심리를 가진 시청자들의 실망감이 큰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 이들은 댓글로 꾸준히 자막에 대한 불만을 남기고 있다. '자막만 잘 되어 있어도 더 재밌게 봤을 텐데.', '차라리 영어자막이라도 나오게 해줘라', '영알 못인 내가 봐도 배우대사와 자막이 안 맞는 게 몇 개씩 보이는데 돈 아낀답시고 혹시 구글 번역기돌림?', '돈 받고 파는 만큼 책임감 있게 자막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올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2017년 등록 작품인데 지금은 2019년입니다; 대충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건가요?' 등 이다. 오래 전에 작성된 수정요청 댓글 내용들은 현재에도 전혀 수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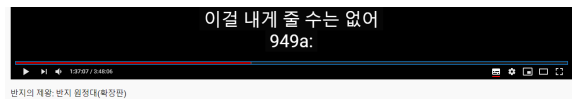


Fig. 1. Error

위는 실례로 반지의 제왕에서 확인된 뜬금없는 오류를 캡처해 놓은 것이다. 시청자가 댓글로 5개월 전에 언급하였지만 현재까지 수정되어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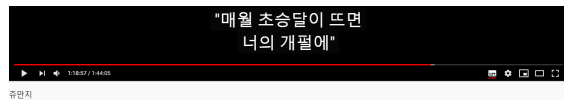


Fig. 2. Error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번역된 자막이 영화의 완성도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시청자들은 영화내의 오역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영화 관계자들은 인식하여야 한다.

외국드라마와 영화는 이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되어 버린 현대에 서로를 잘 이해할 수 폭 넓은 수용력을 가

저야할 때이다. 이에 번역가들도 문자를 문자로 번역하기 보단 영상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화관련 업계는 영화시장이 세계적인 스케일로 방대해진 만큼 타국 시청자들을 위한 자막부문의 투자액을 늘려서 번역의 퀄리티의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표준화시켜야 한다.

영상번역시장의 큰 문제점은 회사에서 번역가들에게 번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과 낮은 임금을 주어 그저 알아듣게만 만들어 놓은, 과거에 머물고 있는 영상 번역 시장 활성화와 제작된 번역물들의 오류가 추후에 시청자들에게 의해 발견되어 수정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오류들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시청자를 위한 스트리밍 플랫폼 관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etflix와 Youtube에서 2개의 작품을 선택하여 분석하였기에 Google, Youtube, Netflix, Amazon과 Disney+ 등 많은 스트리밍 플랫폼 내에 상영되고 있는 영상의 자막들과 플랫폼이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번역이란 주관적이기도 해서, 필자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시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필자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막보다 더 나은 번역들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플랫폼 내의 더욱 다양한 영상들에서 많은 유형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여 영상번역 분야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J. J. Lee. (2004). Case-study of Mis-translations in the Korean Subtitles of the Japanese Soap Opera "Summer Snow".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5(2), 31-46.

[2] C. S. Park. (2005). *Whispering of a Translator*. Hanul Academy Publishing.

[3] B. S. Min. (1988). *Translation room 25 o'clock*. Mannam Publishing.

[4] I. H. Jung. (2006). A research on movie translation strategie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7(2), 2006.09, 207-233(27 pages)

[5] B. Hatim & I. Mason. (1997). Politeness in Screen Translating in L. Venuti(ed.). *The Translati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430-446.

[6] Y. Park. (2012). Mistranslations in English and American movies: Withemphasis on mistakes resulting from flawed understanding and lack of background knowledg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4), 339-360.

[7] S. G. Lee et al. (2002). *Translate in Korean*. Seoul: Book Publishing.

[8] W. L Moon. (2008). A Survey of Translation Errors in Korean Subtitles of DVD Movie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2), 95-124. DOI : 10.15749/jts.2008.9.2.004

[9] J. W. Kim. (2004). The Past and Present of Translation Studie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5(1), 55-75.

[10] K. I. Cho. (2011). *Peculiarities and Meaning of Old Shijo* Translated in English by Pyun Young-Tae. Onji. -(29), 307-336.

[11] J. Lee. (2015). Subtitle Style and Characterization.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6(1), 93-116. DOI : 10.15749/jts.2015.16.1.004

[12] Y. S. Koo. (1997). There are people in line to translate without you. *Social Review*. 86-91.

[13] Wikipedia. (28.11.2020). <https://ko.wikipedia.org/wiki/%EB%84%B7%ED%94%8C%EB%A6%AD%EC%8A%A4>

[14] Wikipedia. (25.11.2020).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D%8A%9C%EB%B8%8C>

[15] Scripts. (27.06.2016). scripts. https://www.scripts.com/script/jumanji_225

[16] ivrybe. (07.08.2017). scripts. https://www.scripts.com/script/the_lord_of_the_rings_%3A_the_fellowship_of_the_ring_1197

오 경 한(Kyung-Han Oh)

[정회원]



- 2015년 2월 : 청구대학교 연극영화과
- 2020년 9월 ~ 2021년 2월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과(문헌석사)
- 관심분야 : 번역, 영상, 융합
- E-Mail: oh.khan0608@gmail.com

노 영 희(Young-Hee Noh)

[정회원]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문헌 정보과 (문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문헌 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도서관, 4차산업혁명, 융합
- E-Mail : younghee.korea@gmail.com